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성공한 후의 지도자

(느헤미야 6장 15 - 7장 73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그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싼 반대파들의 치열한 방해 공작 앞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하던 성 쌓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뒤로 물러서서 공격 치하나 받고 있을 법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성공한 후 그가 보여준 위대함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입니다. 많은 방해자들이 그를 막았으나 마침내 그는 성 쌓는 일을 성사 시켰습니다.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일은 이미 왕이 거부했던 일을 뒤집는 일이므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 앞에는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외적, 내적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모든 역사가 끝났습니다(15절).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로부터 공사를 마칠 때까지 9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용기와 인내심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까? 무엇보다 그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싼 반대파들의 치열한 방해 공작 앞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써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하던 성 쌓는 일이 이루어졌으니 뒤로 물러서서 공격 치하나 받고 있을 법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성공한 후 그가 보여준 위대함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 1. 느헤미야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16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단4:30)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한 말과 정반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받았습니다(단4:31 - 32).

느부갓네살은 그의 이성이 회복될 때까지 들의 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 2. 느헤미야는 성공한 후에도 계속되는 문제를 직시하였다

대개 한 번 성공하고 나면 마치 자기에게는 실패도 미완성도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느6:17 - 19). 그는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반대파의 두목이었습니다. 도비아는 느헤미야처럼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 부유층들과 상거래가 있는 사람으로 혼인관계를 통해 예루살렘 귀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도비아에 대해 느헤미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 3. 느헤미야는 직분자 임명을 바로 했다

3장에서 성벽 쌓는 자들의 명단이 있듯이 7장에는 에스라서의 것과 거의 비슷한 다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굳게 하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7장 초두에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의 임명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7:1). 그리고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시민 지도자(시장)로 삼고, 하나냐를 예

루살렘을 지킬 새 군대 사령관(경찰청장)으로 삼아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리에서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7:2). 인사를 바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충분한 감각(sense)을 가진 자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했습니다.

### 4. 느헤미야는 직분자들에게 적당한 지침을 내려 주었다(7:3)

느헤미야는 백성을 계수했습니다(8절). 이는 현실 파악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7장의 대부분은 에스라서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에스라의 질문은 종교적이었고, 느헤미야의 목적은 현실적이었습니다.

① 본래 지도자들 (6 - 7절)

스룹바벨(정치지도자) 즉 유다의 왕족과 여호수아(종교 지도자)입니다.

② 평범한 유대인들 (8 - 38절)

18명의 개인들은 “~ 자손”, 20개의 마을들은 “~ 사람”(25절 이하)으로 묘사됩니다.

③ 제사장들(39 - 42절)

아론의 후예들로 제사장들은 24가족으로 조직했다. 각 가족이 2-3주씩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포로 후 다윗의 방법을 따라 다시 조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천 명의 제사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④ 레위 사람들 (43절)

레위 후손을 말합니다.

⑤ 노래하는 자들(44절)

레위 족속 중에서 성전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⑥ 문지기들(45절)

⑦ 성전의 종들(46 - 56절)

레위인 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⑧ 솔로몬의 종들의 후예들(57 - 60절)

⑨ 문제 있는 조상들(61 - 65절).

이전의 일을 위로하고 앞으로 올 일을 준비하기 위해(70 - 72절) 이 같은 이들이 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73절). 이들은 총 42,360명(66절)이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새 지도자의 출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는 일, 그리고 임명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분명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모든 역사를 마친 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5 홍해작전 개전 명령

## 6월6일(월) - 25일(토) 새벽5시

2005년도 홍해작전 개전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홍해를 건너야 할 대명을 받았다. 진군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홍해작전 개전 예매를 시작으로 6월6일(월)부터 20일간 매일 새벽 5시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의 개신가를 부르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종은 목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설리와 같은 신학의 기본원리를 강론케 될 것이다.

5대 기도제목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성도들의 결의와 복주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 <2005년 홍해작전 특별행사안내>

- 1) 성경구절 스티커 배부: 매일 새벽 기도회 참석자에게 그날의 성경구절을 배부하여 말씀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며 홍해작전 종료 후 출석우수자에게는 특별시상(성인:서울교회모형 세라믹타일, 학생: 서울교회 파이프 울건모형 세라믹 타일)
- 2) TV 끄기: 홍해작전기간 근신하며 새벽기도회에 참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TV를 끄고 성경 말씀을 사고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교회에 참석(이를 통해 학생들의 TV 시청 및 컴퓨터 오락등을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업에 정진)
- 3) 성경필사: 예배당 헌당을 앞두고 6월 6일 새벽기도 후 시작하여 8월 15일까지 성경을 필사하여 교회에 봉헌.

### <2005 홍해작전 기도제목>

1. 하루씩 앞에서 개인의 회개와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위하여  
떨어진 회개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 가정의 구원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자유되게 하소서
3. 서울교회의 헌당과 비전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헌당하게 하시고, 2010년 까지 전교사 100명 파송, 교회학교 일만 명 이상 출석, 사랑의 집 건립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4. vision 2020 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권도자가 되어 지역복음화, 군선교, 민족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5. 조국의 평안과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소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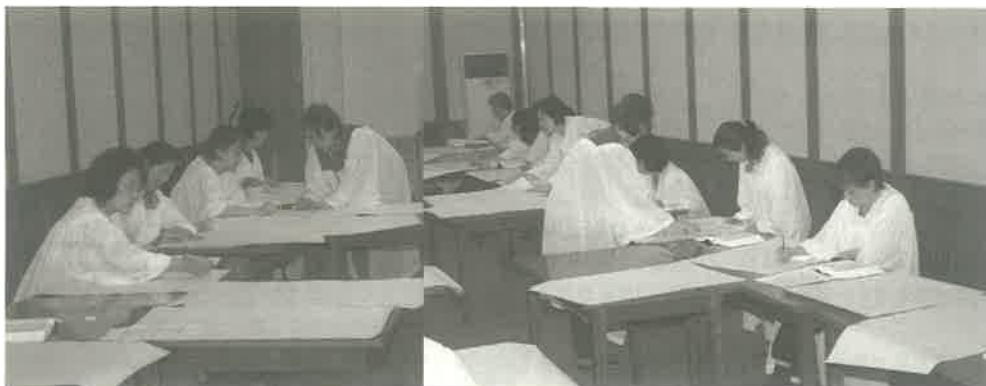
# 서울 암송 필사성경 만든다

교회설립 14주년과 서울교회 새예배당 헌당식에 우리는 말씀위에 세워진 교회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전파하겠다는 결의로 서울 암송 필사성경을 만들어 하나 님께 봉헌키로 하고 이 일을 내일(6월6일)부터 시작한다.

- 진행위 축이 발표한 진행수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교구 또는 교회학교에 신청한다.
  - ② 본문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고 2번 이상 읽는다.
  - ③ 한절 또는 두절의 요절을 찾아 암송한다.
  - ④ 교회에서 필사할 수 있는 시간(1시간 이상)을 교구 간사 또는 교역자에게 예약한다.

- ⑤ 일구에서 암송 테스트를 받고 합격자는 카운을 읽는다.
  - ⑥ 자리 배정을 받아 착석 후 기도한다.
  - ⑦ 필경을 시작한다.
- 8월 말까지 진행될 필경을 위하여 은 교회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필경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은 성경책에 부착되며 사본으로 제작된 성경은 필사자들에게 헌신씩 기념으로 증정케 된다. 이는 가정의 가보로 후대에 물려줄 신앙유산이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사전에 해당면 원고와 연습지를 교구간사를 통해 510호에서 수령해 미리 필사연습을 하여야 한다.



서울 암송 필사 성경을 준비 중인 위원들

## 5월 새가족 환영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강기욱 강영순 강지명 강지은 강홍부 구예은 김경렬 김광년 김동규 김병석 김병환 김보름 김서영 김성환 김환수 김요원 김정은 김정환 김준형 문지인 민주현 박기남 박길섭 박길희 박동호 박민이 박세일 박영수 박지연 박현웅 박희석 서경원 신호경 안태성 연동건 오동준 오예린 유영준 유지연 윤선경 윤 윤윤지원 이경란 이기환 이문일 이상철 이수민 이순이 이양수 이영자 이은지 이재민 이정아 이종석 이준규 이현미 임정환 임재우 임혜란 임혜옥 강상엽 강익화 전수진 전정원 정성원 정성철 정 수 경희주 조만규 조지인 채하은 최근희 최영민 최유경 최윤경 추연태 태영순 허신행 황명희  
계: 79명

## 제9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제9기 찬양대 양성반이 7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한다.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한 이들은 각 찬양대에 배치 받아 봉사할 예정이다.  
<찬양대 양성반수료자>  
김복희 김상열 노정수 동미라 송미라 이시환 이원웅 정성철 정원재 장찬린 지광산 최영래 허태호 홍명수

## 강남노회 중·고등부 찬양경연대회 고등부 은상 수상

우리 교회 고등부는 지난 토요일 영동교회에서 개최된 강남노회 중고등부찬양경연대회 중창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고등부는 이날 은상에 주어지는 15만원의 상금을 헌당을 앞둔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드렸다.

### 금주의 성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 1: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s,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house, have committed against you.  
(Nehemiah 1:6 [NIV])

홍해작전을 준비하며

#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 기도로 홍해를 육지같이

최치순 집사(청년부 부장)



6월은 호국의 달이다. 믿음의 선조들은 평화와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였다. 이들의 희생은 순결한 꽃으로 우리의 가슴속에 피어난다. 이제는 이들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와 자유, 믿음에 대하여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은 핵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끈질기게 그들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으로는 민족 정체성의 와해 이념화로 여아가 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 조장,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신 가정이 이혼을 급증으로 황폐하여 가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총체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개인과 가정에서 상실된 하나님 형상 회복, 혼돈과 무

질서의 위기에 처한 국가가 정체성과 질서를 회복하여 세상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깨우소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앞서가신 서울교회 믿음의 용장들은 하나님 나라와 서울교회를 위해 믿음의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다.

광야길 14년에 하나님은 민족의 구원선인 서울교회를 설립케 하셨고, 민족과 세계를 향한 선교와 교회 섬김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100교회지원, 목회자세미나, KIMCHI 세미나, 비전2020등 복음사역의 확장을 인간의 능력이 아닌 기도로 허락하셨다.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주셨다. 이제 장막을 주님께 봉헌하기 전에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주의 제단에 바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여, 새벽을 깨워 가정과 국가가 직면한 홍해를 육지같이 찬양하며 건너갑시다."

## 중등부 이렇게 홍해를 건넵니다

중등부에서도 홍해를 건너기 위한 작전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1. 홍해작전 기간 중 매 토요일(6/11,6/18,6/25)과 주일(6/12,6/19) 모두 5차례 중등부 전체 새벽 기도회를 갖는다.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중등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진실한 참회와 애절한 간구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며, 주중 홍해작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어 홍해작전에 참여케 한다.

시간은 오전 6:00 ~ 6:20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중등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기도한다.

2. 홍해작전 기간 중 일자별 주력부대를 운영한다. (반별 혹은 학교별)

3. "함께 은혜받자" (가칭) 캠페인 전개

홍해작전 시작 전 "함께 은혜받자" (가칭)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캠페인의 내용은 "TV 드라마 안보기", "반별 모닝콜을 위한 연락망 작성" "밤 10:00에 잠자리에 들기" 등을 적극 권장하여 "새벽기도형" 생활 습관을 만들어 홍해작전 이후에도 새벽기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잠들기 전에 반드시 2005 홍해작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커뮤니티 사이트 "함"에 "홍해작전 은혜나누기"

게시판을 운영하여 홍해작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올리고, 교사 혹은 학부모들도 참여하여 모든 이들이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는 계기를 갖도록 한다.

5. 각종 시상을 하여 학생들이 도전을 받게 한다. (홍해작전 개근상, 홍해작전 모범상)

이렇게 5개로 세분된 계획으로 홍해를 건너는 중등부를 통해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한다.

## 담대히 홍해를 건넵시다

이주연(청년부, 79도래)



6월 6일부터 홍해작전이 시작됩니다. 청년부 지체들에게는 이번 홍해작전이 갖는 의미와 다짐은 남다른입니다.

"홍해작전"이라는 말에는 투지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시작에 배를 "개전예배"라고 부르고, 마치는 예배를 "승전예배"라고 부르는 것처럼, 홍해작전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앞서 청년들이 기대하며 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동력 있는 청년들이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포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부흥"이라는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긴급하게 건너야 할 홍해입니다. 청년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이며, 교회의 부흥이 곧 국가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교회 청년·대학부에는 부흥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청년부 제자훈련반에는 약 40명 정도의 지체들이 인격의 진정한 변화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저녁의 제자훈련반원들을 주축으로 주중에는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고, 최근엔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 후에는 수요일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대학부에서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매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다시 함께 모여 중보기도와 대학부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홍해작전은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간절한 기도로 홍해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담대히 홍해를 건널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암송필사성경을 기다리며...

# 성경필사,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원동력



최금자 권사(11교구)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 흐트러진 마음이 좀처럼 짙증이 안 되고 마음이 공허하던 중 말씀만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성경 필사를 생각하고 말씀 위에서 새 힘을 얻고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결국은 3년 9개월 만에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학노트 6권과 볼펜 20여 자루가 소비되었고 이제는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로 간직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지요. 먼 훗날에 나의 후손들이 할머니의 필적을 보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데 원동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필사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도 교회설립 14주년에 맞추어 예배당 현당을 감사하기 위해 암송 필사성경을 제작하여 하나님께 봉헌키로 하였습니다.

평생에 체험 하기 어려운 귀한 기회에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정의 권사(7교구)

일곱번의 성경 필사를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다만 영혼이 좀 더 맑고 깨끗할 때 필사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지난 7년은 7개월같이 빠르게 지났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장을 넘길 때마다, 또 필사지가 한 장 한 장 쌓여지면서 말씀의 부요하여짐과 밀려온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강단에서 쏟아지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늘 만나는 하나님이셨지만 필사를 통하여는 말씀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시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대면하여 주시고, 막힌 기도를 열어주시고 상하고 낙심한 심령에 위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으시며 움켜 쥐 손은 펴 나주게 하시며 방황하는 나의 영을 힘 있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옮겨 적으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음성을 들었고, 용서와 위로와 약속도 보았습

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하여는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용서를 통하여 한없는 평강을 누렸고, 약속을 통하여는 다시금 힘 있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필사를 시작하며 과연 끝을 맺을 수 있을지 두려웠으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한 절 한 절 적었던 것이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현당을 앞두고 필사본을 봉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온 성도가 참여하는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필사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던 만큼 누렸던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보석일수록 많은 값을 지불하듯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의 보석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귀한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의 표현으로 성경 필사본을 봉헌하는 일에 온 성도는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귀한 일을 동참케 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 성경암송, 필사 참가일정표

(A조 : 1~7교구, 장소 : 802호)

(B조 : 8~14교구, 장소 : 202호)

	6/6(월)	6/7(화)	6/8(수)	6/9(목)	6/10(금)	6/11(토)
<b>1부</b> (오전7시~오전10시)	당회원교역자 명예은퇴무임장토 무지개교회원 성경분원 위원회 임원등	지승연(1) 이민숙(1) 임미경(1) 박신정(1) 신태리(1) 이윤정(1) 장기숙(1) 장혜숙(1) 안명덕(1) 방남희(1)	고정혜(1) 김윤숙(1) 김삼순(1) 백경숙(2) 최경인(3) 노경신(3) 권애란(3)	박정희(1) 임훈자(1) 김금배(1) 박신자(1) 박영실(3) 최경분(3) 최안자(1) 지영순(1)	이재명(1) 고정숙(3) 김형배(3) 노인숙(3) 박선자(3) 인명임(3) 김순구(3) 이재애(1)	강유미(1) 조명오(1) 김연화(1) 김희옥(1) 이선표(1) 김정은(1) 송호신(1) 박대영(1) 서단옥(1)
<b>2부</b> (오후2시~오후5시)	교구간사 필사요원 감사위원	임옥균(1) 이미연(1) 원복순(2) 김영호(2) 오단삼(2) 박성금(2) 유관모(2) 심명숙(1)	박영자(1) 차명숙(1) 김지연(1) 전인화(2) 이갑연(2) 최남수(2) 손현순(2) 이윤정(2) 김진아(5)	박상희(1) 김수원(1) 조미환(2) 김희동(2) 김훈호(2) 이종훈(2) 이효정(2)	이인숙(1) 고유원(1) 송순옥(2) 정영옥(3) 고영숙(3) 안성광(1) 이은옥(3) 이학주(3)	김명숙(1) 김용환(1) 김응량(1) 배정자(2) 이영순(2) 최동현(중) 최희주(중) 이준호(2) 이은희(2) 김인호(5)
<b>3부</b> (오후7시~오후10시)	최영옥(1) 이경남(1) 오현수(1) 서정현(1) 오영석(대) 오영순(대) 오승주(대) 이귀숙(1) 이병도(1) 박미영(1)	김동봉(1) 강승용(1) 서경애(1) 최정신(1) 김환진(2) 최 용(2) 최아영(2) 최금자(2)	김세용(1) 김 윤(1) 노명자(1) 신태봉(예) 안인호(예) 박은영(예)	조명준(1) 민병환(1) 배경옥(1) 이용재(3) 조미숙(3)	김경순(1) 이우진(1) 김일순(1) 조준엽(1) 류장영(1) 류승혜(1) 최양진(1) 강윤숙(1) 최기원(1) 이상아(1)	이현미(1) 오종원(1) 이영숙(1) 서정학(1) 서환상(1) 김영민(1) 김태수(1) 김수경(1) 김준식(1) 박정원(1) 김지희(1) 안춘경(1) 채우희(1) 신홍철(1) 정수환(1) 김철환(1) 허득수(1) 오병순(1)

	6/6(월)	6/7(화)	6/8(수)	6/9(목)	6/10(금)	6/11(토)
<b>1부</b> (오전7시~오전10시)	당회원교역자 명예은퇴무임장토 무지개교회원 성경분원 위원회 임원등	진명자(13) 정 옥(13) 이정자(13) 권혜옥(13) 오가연(13) 박성희(13) 이정희(13) 안재선(13) 송옥혜(13)	유옥현(13) 김인숙(13) 김선영(13) 김경희(13) 박진희(13) 이금순(13)	김혜중(13) 김미영(13) 김은희(13) 한혜경(13) 김일림(13) 주의현(13) 김진숙(9)	김미경(13) 임혜경(9)	손종근(13) 손혜인(13) 이성우(14) 김경래(13) 김미경(13) 강다솜(13) 이소명(13) 김경애(13) 손성실(13) 권오형(13)
<b>2부</b> (오후2시~오후5시)	교구간사 필사요원 감사위원	유성임(14) 최명수(13) 김현숙(13) 고금란(13) 이남성(9) 최영란(9)	김미경(13) 김보경(13) 장경옥(13) 주화인(13) 유계숙(13) 김진월(13) 김미숙(13) 김현주(13) 한경석(8) 송인순(8)	이미숙(13) 최금봉(13) 소경부(8) 김형훈(12) 박경자(8)	신혜진(13) 김영애(13) 김태미(13) 채오복(8) 유현주(8) 유 신(9) 박재숙(9) 임낙식(9) 신영순(9)	임효석(13) 강현우(13) 강현옥(13) 이영지(13) 김영순(13) 김철수(13) 이소란(13) 이소진(13) 소창호(8) 이은주(8)
<b>3부</b> (오후7시~오후10시)	유태서(8) 김선녀(8) 김동열(9) 최경자(9) 조상희(9) 박성원(13) 강애자(8)	우영기(13) 홍지희(13) 홍지연(13) 박지민(13) 이거혜(8) 이동건(8) 한중우(9) 황노견(9)	김인실(13) 구영미(13)	김혜란(13) 정완진(13) 김희순(13) 윤용진(13) 정다을(13) 조건형(13) 김복순(13) 신상철(13) 이태인(13) 주동재(8) 박영숙(8)	이태순(14) 임경락(13) 임기선(13) 박수영(13) 서은석(13) 서정선(13) 서세준(13) 강애순(13) 김순덕(13) 윤태옥(13) 박순복(13) 홍성배(14) 유흥석(13) 오철수(8) 유한영(8) 윤석배(13) 이난화(13) 허태호(13) 이명옥(13) 최봉희(13)	

호국의 달 기획 기사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 그리스도인과 "국가"

## - 국적포기자 문제를 생각하며 -

최근 한 대기업 연구소가 오늘의 한국을 진단하면서 이른바 "한국탈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원정출산과 이중국적, 폭증하는 해외여행, 조기유학 문제 등이 모두 "한국탈출"이란 말과 관련된다. 한번이라도 외국의 질 높은 환경과 교육, 의뢰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사회를 등지고 해외로 해외로 나간다. 이 모든 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니 탓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급기야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라는 사태까지 몰고 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새 국적법은 지난 5월 24일 발효됐다. 이 법의 발효 전에 이중국적자는 만 18살이 되기 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면 군대를 가지 않았다. 그런데 새 법은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포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자 새 법이 발효되기 전에 기존 법의 막자를 타려는 사람들이 국적포기를 한 것이다. 발효 직전까지 무려 1062명이나 한국국적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병역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은 자명하다. 모두 20살 미만의 남자들이었다. 여자는 20명도 채 안 되고, 남자도 스무살 이상은 3명뿐이다. 첫들을 넘기지 않은 아기도 31명이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40%가 서울 특정지역에 살고 있었다.

국회에서 법이 발의된 것이 지난해 11월이다. 불과 두

달 만에 119명의 정부고위층 자녀가 어디서 알고 먼저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이른바 사회 지도층도 '내 나라' 보다는 '내 자식'이 먼저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잖다.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내 나라보다 내 자식이 먼저인가? 국적 포기자들이 털어놓는 말처럼 "잘사는 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잘 살면 그뿐인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 나라를 버렸다는 사람은 없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국가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할 일을 찾는 것이지 눈앞에 불편함이 싫어서 국적을 버린 채 "잘 사는" 나라를 찾아 나서는 자는 아닐 것이다.

한 국가의 국민에겐 그동안 누렸던 권리만큼 책임이란 것이 있는데, 내 자식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것이 싫다고 한 국민임을 포기하는 것은 더 누리고 싶은 권리를 찾아 최소한의 책임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적 포기가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말이다. 김민철(편집부)

# 6월의 꿈

신동기 편사(12교구)

기적들

물고 온

6월의

초록 비명이어!

허기진 영혼

홍해에 던져놓고

울음 덩어리

새벽을 부풀린다

피 묻은 심장

활짝 열어

깨어지고

부서져

하얀 포말로 피어나는

6월의 꿈!

하늘이어

땅이어

서슬 푸른 홍해

호령하는

새비람 불어온다

눈물로

몸서리쳐

바람벽 세워지고

말씀으로 열려 지는

생명의 땅!

그곳으로

서울 암송필사 성경을 준비하며

## 성경필사의 의의와 마음의 다짐



오정식 목사

(서울암송필사성경봉헌위원회 지도)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서울교회는 11월 27일 헌당을 앞두고 서울암송필사성경을 제작하여 하나님께 봉헌코자 한다. 이것은 서울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경필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율법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건한 생활이 검증된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경을 필사했다. 이제

서울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한다. 성경을 암송하고 필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다. 그러므로 성경을 필사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하얀 까운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희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성경필사는 평생에 다시 오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다. 어느 때에 1,7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경의 각 부분을 맡아 필사하고 그것을 모아 한 권의 성경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한국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일이고 자손만대에 길이 남길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우리 서울교회에 이와 같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바란다.



한곡시민양성

#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 이소명 집사 (13교구)

집에서 꽤 먼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왔던 우리 가족은 주일 아침이면 평소 출근할 때 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 지원이는 유치부에서, 우리는 어른예배에서 각각 봉사하며 10여년을 아이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집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이곳 대치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한 날 대문을 열고 밖을 보는 순간 서울교회가 가장 먼저 우리 눈앞에 보였습니다. 서울교회는 정말 우리를 위한 예배당이라 생각하며, 송구영신예배부터 드리고, 2004년 새해 첫 주일 등록하여 새가족부에서 8주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며 첫 믿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의 장로님을 비롯하여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게 인도하신 찬양인도자,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어머니 같은 권도사님, 우리 가족을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반 선생님, 우리가족은 섬기는 분들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 서울교회에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가족부 과정을 수료한 후에도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뒤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목사님의 산소 같은 말씀과 교회화고 열심히 참석하는 딸 아이, 우리 가족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예배시간이 소중한 순간순간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직장 다니는 저는 그간 다락방을 참석하지 못했는데 다락방장님의 끊임없는 전화와 권유로 저녁 남자다락방모임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예배시간을 온 가족이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전엔 멀어서 못 다닌 수요 예배도 이제는 출석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가족 수료 후 찬양대양성반 교육을 받으면서 호흡법과 발성 및 정확한 발음, 찬양대원의 자세 등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배우고 남편과 함께 찬양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봄에는 화요저녁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찬양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생기며, 토요일 연습시간에는 남편과 함께 기쁘게 참여합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장로님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며,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들의 알뜰살뜰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다음에 이처럼 섬기는 모습, 헌신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2005년 봄 시즌 제3회 학요정오음약회



### 오지경

- 한양대학교 음대 졸업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대학원 졸업(석사)
- The University of Michigan 대학원 졸업(박사)
- 필레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역임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 오르가니스트협회 교육이사
-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한국교회 악협회 회장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6월1일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 2일 한국군선교 신학 성모 지음에서 기조연설을, 3일 총회 주재원회에서 주재연설을 하였다. 해외에서 사역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에 감사한다.

■ Music Anima 제11회 정기 연주회에서 오지경 원성(2부 레베 오르가니스트), 최훈더(소프라노, 합창투아 찬양대) 김경희(합창, 합창투아찬양대) 박호 권타라 연주, 6월2일(목) 오후 7시, 30분 경동교회

■ 특난: 서영원 성도 이명정 성도(이종운 목사 3녀) 6/2 미국 미시간 인아브 회회성 성도 박진아 성도(7교구) 6월2일

■ 이사 : 송영재 집사, 함경희 집사(11교구) 송과구 결심동 엘리리아 엘리사 T. 2042-7245

■ 이전 : 윤은숙 성도(7교구) Yea 네트워크 안산시 원광구 밀폐지역밀양118호 T. 031-411-3450

■ 발인설립 : 김형상 성도 최금숙 성도(11교구) 새무법민 Joy 서초구 서초동 1670-12호 T. 523-3500

■ 주간식당봉사: 당회원(6월5일), 스테반회(6월12일)

한곡시민양성

##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난 토요일(5/28) 오후 3시 한티공원에서 뜻 깊은 행사가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바울 남선교회 회원들이 한티공원에 수개월 동안 쌓인 온갖 쓰레기를 집게와 삽을 가지고 대청소를 한 것이다.

더욱 많은 부서에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면 지역복음화의 길을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유대서(편집부)



### 한티공원의 아기 새 동지

바울남선교회(회장 김규태 집사) 회원들이 우리교회 성도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용하는 한티공원을 청소한 결과 큰 쓰레기봉투 여러 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의 오물들을 수거할 수 있었다.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고 싶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 조용하게 봉사한 바울 남선교회 회원들의 손길은 뜨거워지는 햇살아래 더욱 빛나고 있었다.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6월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2005종해작전에 은혜받고 승리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례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서울 양승 · 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특환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1부 오전 9시
예배	2부 오전 11시 20분
3부 오후 2시	
찬양예회	주일 오후 5시
월·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	1부 오전 11시
예·배	2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